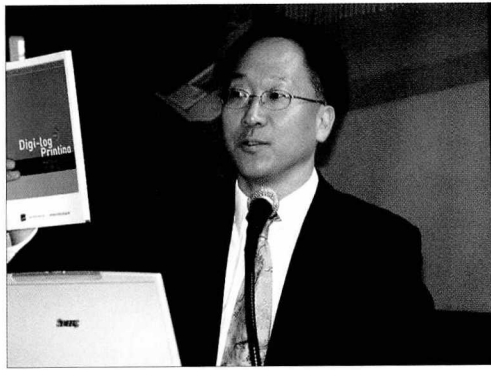




CTP 이해와 인쇄통합시스템 워크플로 구현



최현수 (주)애즈랜드 대표이사

인쇄업체에서의 CTP 도입은 인쇄물의 고품질화와 함께 경제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특히 CTP 도입을 통해 제품 생산 시간의 절약뿐만 아니라 기존 편집·디자인·출력·생산 작업 과정의 불편한 요소들을 해소함으로써, 제품 생산 효율성의 증대는 물론 인

력절감(인건비절감),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CTP 출력은 애플 토크(구내 정보 통신망)에서 핫폴더 방식의 빠른 기반으로 바뀐다. 애플 토크 방식은 쌍방향 대화를 통해 출력을 보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출력을 보낼 경우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편집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핫폴더 방식을 이용할 경우 자동 작업 진행으로 편집 생산성과 효율성이 2~3배 이상 개선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15분 정도 걸렸던 작업이 5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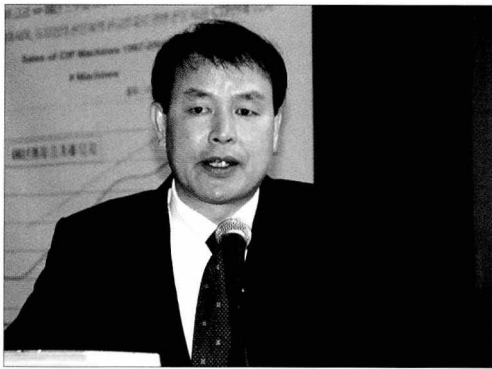
또한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원한다. 편집물에 대한 에러체크 및 자동 교정 기능이 있어 편집에서 발생한 에러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체크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자동 교정을 해준다. 또 사전 검판 기능이 있어 CTP에 출력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화면 또는 교정지로 출력물 내용을 실제 출력물과 동일하게 100% 확인해 볼 수 있다. 출력시 인쇄 판형을 작업흐름 내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템플릿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매번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링크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기술적 운영 어려움, CTP판재의 고비용에 따른 투자대비수익율(ROI)의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업계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시장의 악화 등의 요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CTP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꾸준함을 보이고 있어 도입증가라는 대세는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국내외 CTP 판재 동향과 기술개발 전망

동국대학교 RIS사업단 참여업체인 (주)에즈랜드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RIS사업단이 주관한 '국내외 CTP판재 동향과 기술개발 전망' 세미나가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200여명의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 유창준 편집국장의 사회로 (주)에즈랜드 최현수 사장의 개회사와 동국대학교RIS사업단 이의수 교수의 격려사에 이어 ▲CTP 이해와 인쇄통합시스템 워크플로우 구현 ▲해외 CTP 판재개발 현황 ▲국내 CTP 시장동향과 향후 기술개발 전망 ▲출력용 서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해외CTP 판재 개발동향



안희균 코닥GCG대표이사

8up CTP 판매가 시장을 주도하고 서멀 CTP 판매가 2006년도에 70%를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멀과 비지블 장비도 2006년을 기점으로 각각 70%와 30%로 향후에는 서멀이 6%정도 판매가 늘어나는 반면 비지블은 6% 감소 될 것

으로 전망되어 디지털 인쇄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인쇄판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및 기타 아시아지역은 매년 4.3%, 북미지역 및 유럽지역에서는 매년 3.1%~3.2%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오프셋 인쇄판 시장은 2011년까지 북미시장을 넘어 유럽에 이어 전세계 2위까지 성장을 바라본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전세계 서멀 CTP 판재의 주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75%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중국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비지블 판재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아시아지역, 주로 중국에서만 전통적인 판재가 다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동아시아지역은 인쇄회사의 자본력과 CTP판재 가격 시장성이 미흡하다. 하지만 CTP의 전통방식판은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향후 5년간 서서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쇄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 부자재인 판재시장의 동향 하나하나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판재시장은 이미 중국산의 진출로 과잉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판재가 가격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품질 및 서비스와 함께 판단이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CTP 시장동향과 향후기술개발전망



유영근 대신합성 본부장

CTP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품질면에서 뛰어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생산성이 배가되고 경쟁력이 강화된

다. 반면에 초기비용부담이 크고, 숙달된 전문 인력양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필름을 접고 CTP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망설이게 된다.

CTP 출력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반응도 대체로 양분되고 있다.

CTP 출력기의 도입으로 획기적 성과를 얻어 회사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품질과 능률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반면 CTP 출력기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PS 판에 비교하여 디지털판재 가격이 너무 높아 가격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구미 선진국에서의 CTP 기술은 이미 정점에 이르러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CTP 기술 활용이 보편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대체방안이 등장할 것이라고 서둘러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분명한 것은 CTP와 관련한 기술적 개발 노력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CTP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확정된 바는 없다. CTP의 미래에 변화의 조짐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출력용 서체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민수 (주)소프트맥직 대표이사

서체 회사와 출력소들 간에 간헐적으로 불거져 나온 문제는 서체 사용료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 출력소 관계자들은 CTP를 도입했을 때

서체사용료에 대한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즉 출력장비 구입 후 5년만 경과하면 장비 가격에 맞먹는 비용이 나온다고 전망한다.

구체적인 예로 출력소 입장에서는 서체를 구입해도 꼭 필요한 일부 서체만 사용하는데 굳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서체를 끼워 파는 영업 방법과 일부 서체회사의 A/S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후관리에 대한 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체 회사들은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바로 개발자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사용권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품부터 사후관리까지 들어가는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체를 개발해 완성하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의견차이가 서체 회사들과 출력소가 갈등하는 원인이다.

서체는 결정적으로 문자라는 하나의 식별 코드다. 그리고 출력소는 이 같은 코드를 바탕으로 이윤추구를 한다. 결국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쇄업체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